


Q & A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최대한 성의껏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검색하여 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거세에 대해서...



거세할 때 절개수술이 좋은가요 아니면 줄로 꼭 묶어서 떨어지게 하는 게 좋은가요? 또 절개수술이랑 줄로 떨어지게 하는 것 중에서 좋은 점 과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효과는 외과적인 수술이 가장 확실...

거세는 고급육 생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외과적 방법과 비외과적인 방법인데 효과는 외과적인 수술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시술방법이 다소 복잡한 단점이 있으나 전문가의 지도하에 한두 번만 실습해보시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으며 각 축협외 지도계에서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우선 보정이 잘되어야 하고 전신마취주사와 수술도구, 항생제, 소독제 등이 필요합니다.


비외과적인 방법으로는 무혈거세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객념에 말씀하신 고무링법이 있습니다. 무혈거세는 버디조라는 무혈거세기로 음낭이 사타구니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꼭조여 괴사시키는 방법인데 사육두수가 많은 농장에서 일일이 수술을 하기 번거로울 때 하는 방법으로 거세효과는 9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링법은 혈행을 차단시켜 조직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어떤 방법보다 회복시간이 길고 소에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이 외과적 수술, 다음이 무혈거세, 다음이 고무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고로 거세는 4~6개월령이 가장 좋은 것을 연구결과 밝혀졌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장선식
전 화 : 033-330-0615

Q 비육우의 보리급여에 대하여...



보리를 갈아서 먹이는 것이 육질개선에 대단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고, 먹이면 육성기, 비육전·중·후기 중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먹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지 알고 싶습니다

A 비육후기에는 보리알곡을 40%정도 급여...

현재 총체보리 사료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총체보리를 거세한우에 급여하여 88%이상 1등급 이상 출현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알곡만 한우에 급여했을 때 효과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리의 알곡은 옥수수보다 전분과 단백질 소화가 쉬워 비육후기에 급여하는 것이 좋으며, 옥수수를 전량 대체가 가능하며, 40~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성기, 비육전기에는 총체보리를 다량 급여하고 비육후기에는 보리알곡을 40%정도 급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조사료지원과 김원호
전 화 : 041-580-6773



Q 한우의 음용수에 대하여...

한우사양관리에서 염소이온농도는 어느 정도 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요? 최근저희 농장에서 한우시를 신축하고 한우를 입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굴착, 물은 잘나오는데 약간의 해금내가 나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생활용수)수질검사를 의뢰하여나온 결과물은 다른문제점은 전혀없고 염소이온농도의 기준치가 250이하로 되어있는데 저희 농장은 531.8이라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우 음용수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또 이 지하수에 다른 장치(필터 등)를 연결하면 염소이온을 낮출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단시간(15분) 허용농도는 3ppm...

염소이온은 식수를 소독하는데 중요하지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소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소는 물에 녹으며 강한 자극성이 있는 황록색의 기체로 연소하지는 않으나 수소 혹은 암모니아와 혼합되면 가열 또는 자외선에 의해 폭발하는 수도 있다. 또한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 피부에 접촉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과다 노출시 폐수종, 폐출혈을 일으켜 호흡곤란, 의식상실 등을 초래하여 사망하는 수도 있다.

만성증상으로는 기관지염, 비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치아를 침식한다. 1일(8시간) 평균 허용농도는 1ppm이며 단시간(15분) 허용농도는 3ppm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1일 최대 허용량은 3ppm이므로 고객님의 지하수는 이의 거의 두배가 됩니다.

소가 체중은 사람보다 커서 어느 정도 완충능력은 있지만 송아지의 경우는 피해가 있을 것임으로 사람의 음용수보다 높으면 아무래도 피해가 있을까 의심됩니다.

요즘 축산물 기자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가인공수정기를 보급하는 (주)이레 축산기자재라는 회사가 있는데 물을 이온화시켜 수질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락처와 인터넷주소를 알려드리오니 정보를 보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43-3841 이온수기 관련정보 http://e-rae.co.kr/html/product_01_p1.html》

아무쪼록 신중히 판단하셔서 소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장선식
전 화 : 033-330-0615



Q 소석회사용...

어떤 분이 소석회를 뿌리면 진곳이 열을 내며 바싹 건조된대던데... 그러면 소에게는 지장은 없나요? 유산이나, 발굽기형, 호흡기질환, 피부병등...

A 생석회는 수분 또는 물과 결합시 발열...

소석회는 수산화칼슘으로 건축용 또는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석회를 물과 혼합하면 수산화칼슘이 생깁니다. 생석회는 수분 또는 물과 결합시 발열하게 되므로 화상 또는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생석회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므로 피부와 점막을 상하게 하므로 흡입하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낙농과 허태영
전 화 : 041-580-3406

Q

비육우 축사 한 곳만 유난히 집니다.



비육우축사에 한곳 만 유난히 집니다.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우방에 4두(비육우거세0), 톱밥을 어느 정도? 저희는 25포대(20kg)을 까는데 두 달을 넘기기가 힘드네요. 톱 밥양도 좀 정해 주십시오.

A

톱밥의 두께는 5~10cm 두께가

좋으며...

귀 농장의 톱밥우사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우선 우방면적이 3×7미터=21제곱미터인 경우 칸당 4두이므로 두당 5.3제곱미터가 될 것입니다. 연구지도 추천면적은 두당 7제곱미터이며 최근 농가 현황은 이보다 더 넓게 사육하여 깔짚을 절약하고 소에게 스트레스를 방지하여 웰빙 사육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따라서 귀 농장의 사육조건이 첫째 밀사로 인한 톱밥깔짚이 쉽게 질어지지 않는 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또한 우사의 환기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접하기 좋은 바깥쪽 구석면에 소가 물려 그 자리는 쉽게 질어지므로 45도 각도의 송풍환으로 공기를 순환되도록 하여주며 축사의 공기가 용이하게 신선한 공기로 환기될 수 있도록 배기구를 충분히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톱밥의 두께는 5~10cm 두께가 좋으며 우리당 톱밥의 용량은 2루베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톱밥바닥의 수분은 바닥이 습하면 쉽게 질어지며 통풍이 건조역할에 중요하므로 통풍과 송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사육밀도가 밀사되지 않도록 하는 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기술은 축산연구소 홈페이지→축산기술자료실 →축종별기술정보 →축산시설환경 →깔짚이용한우분뇨처리 등(강희설)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 권두중
전 화 : 031-290-1712

Q

비육우의 성장단계에 대하여...



비육우는 보통 육성기, 비육전·중·후기로 구분하여 사료도 구분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육성기, 비육전기, 중기, 후기는 어떻게 구분(월령, 체중)하는지요.

A

비육전기는 생후13개월령 체중 280kg

에서...

문의하신 비육우의 성장단계별 구분을 말씀드리면 흔히 비육우는 한우를 의미하는데 한우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육성기 : 젖을 떼 시기 생후 3~4개월령 체중 90~110kg부터 생후 12개월령 체중 280kg

▶비육전기 : 생후13개월령 체중 280kg 에서 18개월령 체중 450kg

▶비육후기 : 생후 19개월령 체중450kg 에서 비육종료시인 출하시 까지를 말합니다.

답변자 : 본청 고객지원센터 나기준
전 화 : 031-299-2853

Q

꽃베기 옥수수 한우 급여에 대해...



이웃집 옥수수 수확 후 남은 옥수수대를 베어서 창고내에서 건조중인데요 양이 아주 많지 않아 사일리지로는 만들기 힘들것 같고요 수분이 많은 옥수수대를 한우에 쥐 받는데 생각만큼 좋아 하질 않네요.(소들이 매일 벵짚만 먹어서 그런지..) 작두로 썰어서 하루이를 말려 급여하려고 생각중인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수분이 있는 상태로 급여하는 것이...

옥수수 대를 말려서 급여하면 옥수수대가 딱딱해져서 가축이 섭취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분이 있는 상태로 급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일리지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양이 적다면 벧짚 절단기로 잘게 잘라서 비닐백에 담아 땅속에 묻어두시면 됩니다. 양이 적더라도 사일리지 형태로 저장을 하시든지 수분이 있는 상태로 급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조사료자원과 김중근
전 화 : 041-580-6775

Q 습관성 고창증에 대하여...



약 18개월된 한우 수소가 습관성 고창증으로, 사료를 줄이기도 하고 약을 써보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금방 또 가스가 차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A 조속한 도태를 하는 것이 경제적..


습관성 고창증은 주로 반추위운동에 관여하는 미주신경의 이상, 또는 위하수증 같은 선천적인 해부학적 이상 등으로 발생합니다. 어렸을 때 소화기 질환을 심하게 앓은 후유증이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습관성 고창증은 완치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중탄산나트륨(중조)을 두당 일일 100g을 지속적으로 먹여주어 반추위내 산도를 교정해주고 1위 미생물제제를 매일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약을 중지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체중증가도 잘 안되기 때문에 대단위사육농가에선 조속한 도태를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 화 : 041-661-4680

Q 번식우갈개용 톱밥에 관하여...



한우번식우를 6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왕겨를 구할 수가 없어서 톱밥을 어렵게 구입했는데 톱밥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아 문의합니다. 색깔은 붉은색으로 손으로 만지면 짙고 몽글몽글 합니다. 아마도 아비롱나무톱밥이라고들 합니다. 어린송아지가 먹으면 역세어서 소화를 못시켜 폐사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번식우에 이런 톱밥을 사용해도 괜찮겠는지요

A 3주 정도는 분만 칸을 따로 마련해서 벧짚을 두툼하게..

아비롱 톱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만 어린송아지들은 약간씩은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후 2주일 이내에 먹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화도 못시키고 거친 톱밥에 의해 4위염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주 정도는 분만 칸을 따로 마련해서 벧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세요. 그곳에서 3주간 별도로 사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주가 지나면 송아지가 성장하므로 약간씩 먹는다 해도 견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 화 : 041-661-4681

※ 위 내용은 축산연구소(<http://www.nlri.go.kr>) 및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http://www.limc.co.kr>)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한우농가에서 경영과 사양관리 함에 있어서 유의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